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 –

안희숙* · 김엄지**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표현어휘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조사의 4차 및 5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4차 자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표현어휘력을, 5차 자료에서는 유아의 위축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6.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신뢰도 검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Pearson 상관분석 및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 성별은 위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표현어휘력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표현어휘력과 정적 상관을 위축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표현어휘력은 위축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매개분석 결과, 표현어휘력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위축행동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향상되고 이는 위축행동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언어 발달과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며 유아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실천적·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아, 위축행동, 표현어휘력, 한국아동패널

논문 투고일: 2025. 08. 16. 최종심사일: 2025. 08. 24. 게재확정일: 2025. 09. 20.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Kim Um Ji, Room 1010, Section Office, 200 Wangsan-ro,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2559. E-mail: rladjawl89@hanmail.net

I. 서 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청소년기의 우울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24)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7~18세) 수는 53,070명으로 이는 2018년 30,190명에 비해 약 75.8%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2022)가 실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 조사’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이 약 1%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기부터 정서적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과거에도 2~5세 유아 중 약 1~2%가 우울증을 경험하였으며 유아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심각한 정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세계일보, 201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의 42%가 최초로 정신장애 진단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신문, 2019).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기에 형성된 잘못된 사고와 정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으며(조재숙·박재학, 2017), 문제행동을 방지할 경우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il et al., 1998). Achenbach(1991)은 아동행동평가척도를 통해서 문제행동을 외현화,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으로 비행, 공격성 등이다. 내면화 문제행동은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된 행동을 타나내며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이다(조재숙·박재학, 2017).

그래서 유아의 문제행동은 성인기의 정신과적 문제를 예측해 주고 있기에 빠른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Caspi et al., 1996). 유아기는 불안, 우울, 분리불안, 슬픔, 불행감, 걱정, 분노, 감정 폭발, 공격적 행동(때리기, 싸우기), 낮은 주의 집중력, 퇴행 행동, 또래 관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이미경·김소향, 2018 재인용). 많은 연구자들이 유아기의 문제행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아기가 긍정적 및 부정적 발달이 공존하는 중요한 전환기이기 때문이다(Rubin et al., 1998). 문제행동이 일시적으로는 발달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지속될 경우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승하·민가혜·연규승, 2020). 또한, 사회성, 협동심, 감정 조절 능력, 양보 등 사회적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이들 기술은 또래와의 놀이 및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다(안희숙·도미향, 2025).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인해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감소하고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서 장시간 생활함에 따라 또래와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2). 그 중 위축은 교육, 보육기관에서 또래와 원만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기관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보선·성지현, 2019). 따라서 위축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혼자 놀이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한준아, 2016 재인용). 이러한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회피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Campbell, 1995; Coplan et al., 2004),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비록 위축 행동은 내면화 문제행동 범주에 속하여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Achenbach, 1991), 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한준아, 2016). 따라서 유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유아의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능력(한준아, 2016), 부모의 정신건강(이미경·김소향, 2018), 부모의 양육태도(경기영·강태석, 2024; 서미정·고영아, 2023) 및 양육스트레스(신명선·김효정, 2017) 등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위축행동은 유아가 갖고 있는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모두 관련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위축행동은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 환경인 가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일차 양육자인 부모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정호영·최은실, 2020).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유아의 위축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안희숙·도미향, 2025)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 아버지도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정호영·최은실, 2020).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자녀 양육의 분담이 출산 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지영·허가영, 2025).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육 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에 초점을 두고 아동 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다(박혜경·강진주,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비일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 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최항준, 2017), 자녀의 사회·정서·인지·행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최효식, 2020).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서수진·도미향, 2019), 또래 상호작용(강수현·신나리, 2018), 사회정서 발달(김은희·정희정, 2019), 회복 탄력성(주시연·김경숙, 2022), 문제행동(이도윤·양난미, 2020; 정호영·최은실, 2020, 하민경, 2020)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가족 구조의 증가는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책임 또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김순란·김용미, 2019),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박혜경·강진주,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과 관련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아 위축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는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언어 능력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고력과 표현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안희숙·도미향, 2025). 특히 유아기는 새로운 어휘를 매일 습득하며 이를 통해 언어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이다(박성민·임정하, 2022).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가 확보되어야 원활한 언어 활동이 가능하므로 유아기의 어휘력은 언어발달의 기초이자 핵심 지표로 간주된다(Nelson, O'Neil, & Asher, 2008; Hoff, 2005; Scarborough, 1998). 또한 어휘력은 상위 수준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활동과 다른 발달 영역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박성민·임정하, 2022).

어휘력은 일반적으로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으로 구분되며(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 수용어휘력은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표현어휘력은 의미와 맥락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아기의 어휘력 발달은 다양한 환경적·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희숙·도미향, 2025).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언어능력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며(이효림·이지연·정정희·정효진, 2020; 권수진·오새니·이상희, 2016), 언어발달 수준이 낮은 유아일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승하·민가혜·연규승, 2020; 신수진·김현명,

2018; 김영태·강진경·김정아, 2019).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아 언어와 내재화 행동문제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되어(조성웅·김월순·임해진, 2020),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이나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 즉, 언어능력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휘력 또한 관련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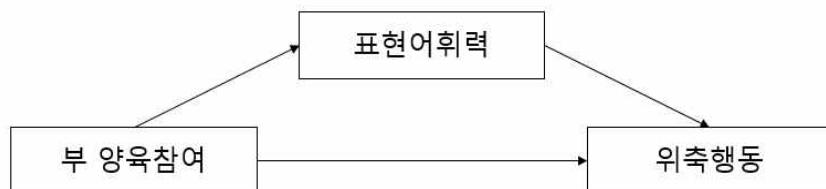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표현어휘력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Harris et al., 1998)에 따라 표현어휘력과의 관련성 또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위축 행동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탐색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유아기의 언어발달, 특히 표현어휘력은 정서적·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선행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규명하고, 이 관계에서 표현어휘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유아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수행하는 한국아동패널(PSKC)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표집된 2008년 출생 신생아 2,15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을 제외한 1,58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조사에 해당하는 아버지 양육 참여, 유아의 표현어词汇력 자료와 5차 조사의 유아 위축 행동을 활용하였다.

유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1> 유아(4차) 인구통계학적 특성 (N=1,582)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아	802	50.7
	여아	780	49.3
월령	35개월	10	0.6
	36개월	86	5.4
	37개월	234	14.8
	38개월	364	23.0
	39개월	435	27.5
	40개월	271	17.1
	41개월	137	8.7
	42개월	42	2.7
	43개월	3	0.2

2. 연구 도구

1) 아버지의 양육 참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홍성례(1995)가 개발한 남편의 가족

역할수행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측정 도구는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가사 분담자 역할’, ‘가계 경제관리 역할’, ‘부양자 역할’, ‘대외자 역할’의 7개 영역에 걸쳐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모 역할’ 영역에 해당하는 6문항 중 4문항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 의해 일부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문항들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라는 하위 영역으로 재구성되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2) 유아 위축 행동

유아의 위축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유아행동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 - 5; CBCL 1.5 - 5)중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위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위축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예로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을 피한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한다’,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등이 있으며, 이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특성을 반영한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거나 많이 그렇다(2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위축행동은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내재화 문제 하위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축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64$ 로 나타났다.

3) 표현어휘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 외(2009)가 개발한 수용·표현어휘력 검사 도구 중 표현어휘력 검사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유아가 제시된 그림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어휘를 말하도록 하여, 언어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검사 문항은 총 185 개이며, 명사 106개, 동사 58개, 형용사 및 부사 21개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품사의 어휘 사용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유아가 정확하게 말한 어휘의 수가 점수로 환산되며 이는 어휘 이해도와 표현력의 수준을 반영한다(박성민·임정하, 2022). 특히, 본 검사는 유아의 생활연령에 따라 시작 문항을 조절하고, 기초 반응 수준이 확인되면 점차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진행되어 언어 능력의 폭넓은 측정이 가능하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을 매개로 위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26과 AMOS 2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특성과 정규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매개변수인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4차년도(2011년) 자료를, 종속변수인 유아의 위축행동은 5차년도(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인을 측정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변수 간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허미경·도미향, 2025).

4.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문항 응답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점수만 제공되는 표현어휘력을 제외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위축행동 척도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판단 기준은 Cronbach's α 값이 .60 이상일 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하며(Hair et al., 1998),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α 값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관련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아버지 양육참여	4	0.80
위축행동	8	0.64

III. 연구결과

1.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 위축행동 및 표현어휘력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주요 변인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평균은 3.61($SD=0.81$), 유아의 표현어휘력 평균은 30.01($SD=13.73$), 위축행동 평균은 53.85($SD=5.53$)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Kline, 2005).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정규성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양육참여	1.00	5.00	3.61	0.81	-0.271	-0.371
표현어휘력	0.0	69.0	30.01	13.73	0.114	-0.478
위축행동	50.0	90.0	53.85	5.53	1.635	2.779

2. 유아 성별 및 월령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분석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위축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현어휘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4.093$, $p<.001$). 표현어휘력 점수는 남아(평균=28.63)에 비해 여아(평균=31.4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령에 따른 차이 역시 표현어휘력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40개월 이상 집단이 40개월 미만 집단보다 표현어휘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4.439$, $p<.0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분석 시 성별과 월령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4> 유아 성별 및 월령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표현어휘력	남아	28.63	13.88	-4.093	0.000
	여아	31.44	13.43		
위축	남아	53.93	5.61	0.569	0.569
	여아	53.77	5.45		
표현어휘력	35~39개월	29.05	13.47	-4.439	0.000
	40개월 이상	32.42	14.11		
위축	35~39개월	53.84	5.62	-0.134	0.894
	40개월 이상	53.88	5.32		

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 위축행동 및 표현어휘력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071$, $p<.01$), 위축행동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61$, $p<.05$). 또한,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위축행동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102$, $p<.001$).

<표 5> 상관관계 분석

	부 양육참여	표현어휘력	위축행동
아버지 양육참여	1		
유아 표현어휘력	.071**	1	
유아 위축행동	-.061*	-.102***	1

*p<.05, **p<.01, *** p<.001

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 위축행동 간 관계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 효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과 월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경로분석 결과

경로	B	SE	β	t	p
아버지 양육참여 → 표현어휘력	1.14	0.42	0.07	2.73	0.006
표현어휘력 → 위축행동	-0.04	0.01	-0.10	-3.92	0.000
아버지 양육참여 → 위축행동	-0.37	0.17	-0.05	-2.15	0.032
성별 → 표현어휘력	2.63	0.68	0.10	3.88	0.000
월령 → 표현어휘력	1.52	0.23	0.16	6.53	0.000
성별 → 위축행동	-0.05	0.28	-0.01	-0.19	0.849
월령 → 위축행동	0.06	0.10	0.02	0.61	0.544

먼저, 모형 적합도 검토 결과, 본 경로모형은 자유도가 0인 포화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TLI=1.000, CFI=1.000, χ^2 검정 $p>.05$)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7$, $p <.01$), 위축행동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beta = -.05$, $p <.05$). 또한, 표현어휘력은 위축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0$, $p <.001$).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향상되고, 위축 행동은 감소하며, 표현어휘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위축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 -.007, p<.01).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독립변수, 유아의 위축행동은 종속변수, 그리고 표현어휘력은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모형 분석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는 유아 위축행동에 직접효과를 가지며, 동시에 간접효과를 통해 유아의 위축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효과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표현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위축행동을 감소시키는 경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표현어휘력을 매개로 유아의 위축행동을 간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매개효과 유의성

매개경로	Effect	Boot LLCI	Boot ULCI	p
아버지 양육참여 → 표현어휘력 → 위축행동	-0.007	-0.015	-0.002	0.00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표현어휘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위축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위축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표현어휘력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위축행동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지현·정지나, 2011)와 일치한다. 반면, 여아가 남아보다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한 연구(한준아, 2016)나 남아가 여아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한 연구(신명선·김효정, 2017)와는 상반된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 요인 중 하

나인 위축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룬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서미정·고영아, 2023), 이에 따라 위축행동은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위축행동이 지속되면 우울, 불안,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양명재·방희정, 2014), 유아기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해외 선행연구들처럼 이를 독립된 차원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서미정·고영아, 2023). 또한 언어발달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발달이 빠르며, 언어장애는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김경철·김은혜·정혜승, 2019; 임현주, 2015; 임현주·최항준·김현정, 2015).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위축행동과는 부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위축행동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표현어휘력이 높을수록 위축행동 수준이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표현어휘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박혜경·강진주, 2024) 해당 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사회·정서·인지·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연은모·최효식, 2020 재인용)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표현어휘력 및 위축행동과의 관련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위축행동에 각각 정적,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향상되고 위축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표현어휘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위축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표현어휘력이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아버지는 양육 과정에서 유아와 놀이를 함께하며 다양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이는 어머니보다 놀이성이 풍부하고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권정윤·정미라·이방실, 2015).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접하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하게 된다. 더불어 성별과 관계없이 아버지와의 신체놀이는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 때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하연·김명순, 2024).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단순히 놀이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함으

로써 유아의 표현어휘력 발달을 촉진하고, 나아가 위축행동 감소에도 기여함을 보여준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효은·김준경, 2018),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휘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장유진, 2018).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도 관련이 있으며(서미정·고영아, 202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조재숙·박재학, 2017). 아울러,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강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제한된다는 보고도 확인되었다(강수경·김해미·정미라, 2019).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표현어휘력 및 위축행동이 단지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참여와 가족 내 상호작용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기존의 횡단적 연구는 동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변수 간 인과적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나(허미경·도미향, 2025), 본 연구에서는 4차 조사에서 수집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표현어휘력 자료와 1년 후 5차 조사에서 측정된 유아의 위축행동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 인과적 방향성을 탐색하고 유아 발달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는 단일 시점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매개효과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족 중심의 조기 개입 및 발달 지원 정책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수집 당시의 가족 구조, 양육 환경, 사회적 인식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안희숙·도미향, 2025), 이후 저출산 지속과 다양한 육아지원제도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변화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자료에 기반한 분석으로 발달적 변화와 변수 간 인과적 방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요인 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장기적인 중단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의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양육자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참여를 포함한 분석과 더불어, 부모 간 비교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 중 위축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유아의 정서, 불안, 우울, 수면 등 다양한 내재화 문제행동 또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 직업,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미현·최혜순, 201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배경요인과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경·김해미·정미라(2019).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9(4), 175-194.
- 강수현·신나리(2018). 영아기 기질적 활동성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8(3), 1-23.
- 경기영·강태석(2024).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1(1-2), 115-145.
- 고보선·성지현(2019).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 교사-유아 관계 및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2(1), 45-67.
-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현황.
- 권수진·오새니·이상희(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변인연구: 유아변인, 어머니변인, 또래관계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385-406.
- 권정윤·정미라·이방실(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김경철·김은혜·정혜승(2019). 영유아발달. 서울:동문사.
- 김순란·김용미(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동향: 1984년부터 2019년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9(4), 127-140.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지침서.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영태·강진경·김정아(2019). 아동의 언어능력과 사회정서발달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2), 274-287.
- 김은희·정희정(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원가족 애착경험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4), 63-78.
- 김지현·정지나(2011). 유아의 위축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대한가정학회지*, 49(9), 15-24.
- 라지영·허가영(2025).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9(1), 51-74.
- 박성민·임정하(2022). 유아기 어휘력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 고찰: 국내 학술지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2(1), 235-265.
- 박혜경·강진주(2024).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2), 993-1018.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2022).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 서미정·고영아(2023).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7(2), 3-25.
- 서수진·도미향(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 행복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4(3), 353-372.
- 세계일보(2017) 걸음마 아이도 정신건강 질환 앓는다. <https://news.zum.com/articles/42023837/>
- 신명선·김효정(2017). 3~5세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스트레스. **언어치료연구**, 26(4), 157-171.
- 신수진·김현명(2018). 유아의 기관적응과 주의집중력, 문제행동, 언어능력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2(4), 173-196.
- 안희숙·도미향(2025).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현어휘력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2), 39-583.
- 양명재·방희정(2014). 유아의 수줍음, 인지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위축 및 불안·우울간의 관계: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363-386.
- 연은모·최효식(2020).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 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차이 비교: 잠재계층성장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지**, 21(1), 468-476.
- 육아정책연구소(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
- 이도윤·양난미(2020). 어머니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21(1), 47-68.
- 이미경·김소향(201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신건강이 자녀의 위축 및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235-259.
- 이미현·최혜순(2014).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307-330.
- 이승하·민가혜·연규승(2020).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인지능력, 갈등해결능력, 운동 능력 간의 관계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455-481.
- 이하연·김명순(2024). 아버지-유아의 거친신체놀이에서 아버지의 부모성찰력, 신체활동성, 언어소통 의도가 유아의 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44(3), 113-137.
- 이효림·이지연·정정희·정효진(2020). 유아의 놀이성과 언어능력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1), 113-143.
- 임현주(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 임현주·최항준·김현정(2015).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변인 및 가정환경,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인지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6), 247-264.
-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매뉴얼 부모용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장유진(2018).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만3세의 또래상호작용이 만 3세, 만5세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2(4), 123-140.
- 장효은·김준경(2018).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발달과 유아기 또래상호작용간의 종단 관계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8(1), 77-102.
- 정호영·최은실(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51-70.
- 조성웅·김월순·임해진(2020).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기술, 언어능력, 부부갈등 간의 관계 및 영향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1127-1150.

- 조재숙·박재학(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 조절 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7(2), 1-20.
- 주시연·김경숙(202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455-469.
- 최항준(2017). 유아의 기질,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 및 영향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4(2), 23-52.
- 하민경(202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905-925.
- 한겨례신문(2019). 정신장애 절반가량 아동, 청소년기 시작하는데. 의료체계 '구멍',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12153.html>
- 한준아(2016).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갈등대처 행동이 남아와 여아의 위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5(3), 281-293.
- 허미경·도미향(2025).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1), 87-109.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Caspi, A., Moffitt, T. E., Newman, D. L., & Silva, P. A. (1996). Behavioral observation satage 3years predict adult psychiatric disorders: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033-1039.
-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1), 113-150.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 Feil, E. G., Severson, H. H., & Walker, H. M. (1998). Screening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elays: The early screening project.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1(3), 252-26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5, No. 3, pp. 207-219).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rris, K. M., Furstenberg, F. F. & Marmer, J. K. (1998). Paternal involvement with adolescents in intact families: *The influence of fathers over the life course*. *Demography*, 35(2), 201-216.
- Hoff, E. (2005). Language development (3rd ed.).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Nelson, D. G. K., O'Neil, K. A., & Asher, Y. M. (2008). A mutually facilitativ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names and learning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The case of artifact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9(2), 171-193. doi: <https://doi.org/10.1080/15248370802022621>.
- Rubin, M. B. William., and G. P. Jeffrey.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carborough, H. S. (1998). Early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for reading disabilities: Phonological awareness and some other promising predictors. In B. K. Shapiro, P. J. Accardo, & A. J. Capute (Eds.), *Specific reading disability: A view of the spectrum*(pp.75–119). Timonium, MD: York Press.

Abstract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Infants' Atrophy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Expressive Vocabulary

Ahn, Hee-sook* · Kim, Um-ji**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on children's withdrawn behavior, with expressive vocabulary as a mediator. Using data from the 4th and 5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expressive vocabulary (4th wave) and withdrawn behavior (5th wave) were analyzed with SPSS 26.0 and AMOS 22.0. Findings indicated that children's gender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withdrawn behavior, although expressive vocabulary differed by gender. Fathers' involve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expressive vocabulary and negatively related to withdrawn behavior. Expressive vocabulary was also negatively associated with withdrawn behavior, partially mediating the effect of fathers' involvement. These results emphasize the role of fathers in promoting children's language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fering pract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fostering healthy adjustment.

Keywords :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infants, atrophy behavior, expression vocabulary, Korean children's panel

* Doctorate Course, Child Care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Doctorate Course, Child Care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